

서울시민 다치면 최대 2000만원 준다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 상향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실버존 교통사고 보장 추가
중상해~경상해까지 범위 확대

#.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A군은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게 됐다.

#. 다가구 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B씨의 유가족은 2000만원,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해 골절된 C씨는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16건의 사고에 총 7억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중교통

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포츠사고(3건) 순이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업체를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바꾸면서 지난 2년간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민 보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부터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 발송 총 3가지의 개선책을 시행한다.

먼저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포츠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시는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나아가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도 개시한다. 이전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이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서류 접수 후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나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안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윤지수 "눈으로 듣는 한양" 상설전시 수어 영상.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역사 눈으로 들어요" 수어 전시해설 영상 제작

서울역사박물관-국립서울농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이 시나리오 제작

서울역사박물관은 청각장애인들의 박물관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향유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립서울농학교와 지난 1년간 수어 전시해설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눈으로 듣는 한양' 프로젝트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영상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장애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함께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어 해설 영상과는 차별화된다고 박물관 측은 설명했다.

프로젝트 결과물인 '눈으로 듣는 한양' 영상은 전년도에 새롭게 개편한 서

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 '조선시대 서울'을 소개하는 수어 해설 영상이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쓴 만큼 내용이 쉽고 자세할 뿐만 아니라 해설 방식과 화면 구성도 신선하다"고 말했다.

출연자 한 명이 수어를 해설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두 명의 친구가 학교 역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전시를 같이 보며 대화하는 상황 설정은 영상에 몰입감과 재미를 더한다. 또 청각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다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수어와 자막, 풍부한 시각자료로 화면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눈으로 듣는 한양' 영상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디자인 스타트업 성장 지원

'WE UP 프로젝트' 내달 공모

서울시는 '2021 WE UP(위업)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트업과 함께 총 5종의 공공디자인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WE UP 프로젝트'는 잠재력 있는 디자인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타트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디자인으로 개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 기업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



업박성 활용 모습. /서울시

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WE UP 프로젝트에 총 24개사가 참여해 26개 디

자인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기획안을 제출한 5개 디자인 스타트업을 WE UP 프로젝트 참가 기업으로 선정해 7개월 동안 디자인 기획·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유통망 연결,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했다.

시는 'WE UP 프로젝트'로 서울시와 함께 디자인을 개발할 스타트업 선정을 위한 기획안 공모를 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 스타트업 단계의 기업 중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에 따른 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된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25일까지 체납관리단 59명 모집

고양시가 '2022년 4단계 체납자 실태조사사업' 실시 계획에 따라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체납관리단을 오는 24일부터 25일

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체납관리단 채용 인원은 59명이다.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면 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실태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기도, 산단 中 小 청년에 교통비 지원

월 5만원 바우처로 제공

가능하다.

경기도가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1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바우처는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 주유, 전기차 충전에 활용이

당초 지난해 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산단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고용유지를 위해 국비와 도비(국비 8, 도비 2)를 일부 분담하는 방식으로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원자격은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 15~34세) 노동자로,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만큼 상한 연령이 연장(최장 5년)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7 | 노을해짐 17:33

1월

12일 (수)

음력 : 12월 10일

수도권 날씨

-12 ~ -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AP통신 보도사진 NFT 마켓플레이스 31일 첫선
▲ 사람 몸에서 '돼지 심장' 미국서 첫 이식 수술 /사진 뉴스스

▲ 시인 마야 안젤루, 흑인 여성 최초로 미 25센트에 새겨져
▲ 중국, 베이징올림픽 선수·방문객에 디지털위안화 서비스 개방



▲ 홍콩공항 15일부터 '코로나 방지' 한국 등 150개국발 환승금지 /사진 뉴스스
▲ 코로나속 작년 일본 고급외제차 판매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고

버스타비 **잡**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